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 1996년도 교회 성구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토해냈던 웃음과 눈물, 한숨과 노래는 1995년 지는 해와 함께 영원한 과거로 묻히고, 소망의 새해가 밝아왔다. 교회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1월 1일 0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려왔으나 금년에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식으로 새벽 5시, 9시, 11시에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성탄절과는 달리 교회학교는 따로 예배가 없었기에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

며,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며 1996년도 첫 발걸음을 떼었다.

또한 기도원에서는 1월 2일 밤부터 5일 새벽시간까지 정석홍 목사(신현교회 담임, 총회장)를 모시고 「신년 부흥사경회」가 열렸다. 「구원과 축복의 생활」(시 3:8)이란 주제하에 3박 4일간 열린 이 부흥사경회에서는 첫 시간부터 많은 성도들로 자리가 넘쳐 집회 시간에 맞추어 온 성도들은 문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성도들은 구원과 축복받는 비결을 선포하는 열정



적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공적인 새해를 시작하였다.

한편 교회에서는 1월 3일 오전 9시에 선교관 5층 회의실에서 전 교역자와 상근 직원들이 모여 김창인 원로목사를 모시고 하나님께 시무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시무에 들어갔다. 시무예배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새해에는 아멘소리가 살아나는 교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또한 봉사에는 맘이 있어야 하는데 맘이 없는 일꾼은 실패

요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며 새해에는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물어줄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 써주시는 일꾼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 모두는 금년도 교회 성구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는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한해를 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절반 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시작은 귀합니다. 금년 1년이 시작되는 정월 첫주, 오늘 시작을 잘 하셔서 1년 365일 날마다 일초도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오염된 공기에 숨쉬고, 오염된 타격을 받고, 먼지 속에 좌악 속에 살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 위에 살 때에 값이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람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성구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 김창인 목사 신년 인사 *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기를

둘째로, 대적하는 자를 겁내지 마시다. 셋째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합시다. 넷째로, 순교자의 삶을 살시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때 전쟁하는 전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쟁이 살아있을 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시점까지 항상 겸손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이겨야, 가정에서 이겨야, 교회 안에서

이겨야, 세상에서 이겨야 악마를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잡아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홍해는 육지가 되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여리고는 평지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살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맺고, 기동감이 되는 재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땅 위의 일꾼들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좋은 일꾼도 생기를 축복합니다.

충현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시내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 솟듯 하는 보혈의 시내에 우리의 뿌리를 박읍시다. 하루를 바로 살지 못하면 집을 짓는데 벽돌 대신에 썩은 나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좋은 벽돌로 계속해서 쌓읍시다. 하루 24시간 뜻있게 삽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먼저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수입의 1/10을 바치며, 성수 주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신년예배 설교 ●

금년 우리 신앙생활은 (빌 1:27-30)

오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금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사람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법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속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동불은 밝게도 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지만, 태양은 더 밝게 할 자도 끌 사람도 없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변하지 아니"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어떤 세력있는 자도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저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너도나도 완성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았느냐 묻는다면 백점짜리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공기없는 곳에 인생이 없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십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간판으로도 안 됩니다. 부족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 꽃피고 열매맺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보람있게 삽시다. 값이 있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 결심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육신의 밤을 먹기 전에 성경 한 절 이상을 묵 읽고 밤을 잠수 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각이 아름다운 팔걸음을 옮겨볼시다. '뭇 할꺼야, 중간에 그만 돌꺼야' 이런 믿음 적은 생각하지 말고 믿읍시다.

2. 대적하는 자를 겁내지 맙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해도 언제든지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주소서. 남아 있는 백성들이 범하는 죄도 용서하여주소서. 예루살렘성전 무너진 것 다

시 짓는 날을 주옵소서.' 하루 세 번씩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다니엘, 욕심없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자들은 같이 숨어서 기도했는지 모르나 미워하는 자들은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시기하는 자와 원수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아무데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는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바보처럼, 미련둥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죽을꺼야. 허허 한심한 것' 원수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살아나 와서 임금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기 전에 선한 일을 시기하고 비방하던 자들은 사자굴에서 뼈가 부서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 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겁없이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면 누가 손을 댈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가 길을 잃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좋으나, 세상의 권세도 좋으나 그것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시다. 그러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변하지 아니"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믿습니까? 선한 일 시작했다가 낙심하거나 만길로 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합시다

어떻게 보람있게 사느냐, 셋째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정명은 훈련받는 고생도 있고, 싸워야 하는 위험과 고생도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질 같은 고생이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쫓겨나는 고생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가는 길에 고생이 있다는 것을 각오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고생을 각오하면 고생은 안오고 복이 오기도 합니다. 고생을 각오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고생이 올 때에 멀어 집니다. 따라 읽읍시다. "고생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고생이 올 때에 무릎 꿇지 말고, 고생이 올 때에 대학교에 입학하자" 고생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무릎 꿇지 말고 고생 대학에 입학합시다.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바로 고생대학입니다. 고생은 분명히 어렵습니다만 고생을 잘 이기고 나면 자격증이 옵니다. 그 자격증은 놀라운 축복의 자격증입니다. 영광이 빛나는 자격증입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똑같이 10년 감옥생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잡아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홍해는 육지가 되고, 여리고는 평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내가 했거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합시다. 넘어진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이 책임을 집시다. 전쟁은 숨지는 날까지 항상 계속되는 것을 알 때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기도하고 애쓰고 정성을 쏟으면 천국이 옵니다.

활을 해도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10년 고생한 것과, 억울하게 나라를 사랑하던 애국자가 모략증상에 걸려 10년 고생을 한 것과, 믿음지키던 사람이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감옥에 갇혀 10년 고생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두는 일을 위하여 고생대학에 들어가 고생을 이기고 자격증을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올 때 나만 당하는 것으로 알면 원망이 나옵니다. 낙심하면 자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이 올 때에 대학에 입학해서 가난할 때에 탐욕해서 일해보면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결코 굶어죽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변하지 아니" 그 나라 가까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십자가를 질 고생 각오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고생 왔느냐 좀더 올리면 와라, 어려운 고생이 오면 그보다 더 귀한 면류관이 옵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깁시다. 고생을 각오하고 기도하면 고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순교자의 각오로 삶을 삽시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때 전쟁하는 전사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쟁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순교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죽는 순간까지 전쟁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경솔해 집니다. 항상 겸손히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누구와 싸웁니까? 자신과 싸웁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넘어 집니다. 칭찬 듣고 교만해지는 자여, 내일이 언덕에 굴러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잘못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이리 사람을 책망해. 너는 안그러니? 어디 보자.' 하면 그 악한 마음 속에 그 믿음이 병들었다. 인간은 세상 끝날 때까지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혈기가 올라올 때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자신과 싸우지 못하면 넘어져 코끼리 집니다. 신자들이여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이겨야, 가정에서 이겨야, 교회 안에서 이겨야 세상에 이겨야 악마를 이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든다" 악마가 우리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입벌리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잡아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홍해는 육지가 되고, 여리고는 평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내가 했거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합시다. 넘어진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이 책임을 집시다. 전쟁은 숨지는 날까지 항상 계속되는 것을 알 때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기도하고 애쓰고 정성을 쏟으면 천국이 옵니다. 어디에?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믿습니까?

또한 하늘창고에서 공급을 주십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살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맺고 기둥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현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시내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생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생애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생애는 보혈의 시내에 우리의 뿌리를 박읍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좋은 벽돌로 계속해서 쌓읍시다. 하루를 바로 살지 못하면 집을 짓는데 벽돌 대신에 썩은 나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먼저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199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태양이 솟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해가 바뀌면 지난 해를 회고해보며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새해를 전망하게 됩니다. 새해에 첫번째로 발간되는 주간충현 350호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을 주간충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을 수는 없고, 우선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새해 소망들을 넘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당회 / 서기 우기전 장로

새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 사고와 큰 변혁 속에서 실로 다사다난했던 1995년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도 편안하지만은 않은 한해였습니다. 연초에 꿈꾸었던 무지개 빛 희망들이 지금은 쓸쓸한 맛으로 남는 것은 나만의 감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건강한 사회로, 깨끗한 교회로 키워 나가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1995년을 유엔에서는 '관용의 해'로 정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한해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과실을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오라 하시니라"(눅 13:6-9). 소망의 새해, 이 아침에 이 성구가 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한해를 결전의 해로 삼으라는 주님의 뜻일까요. 새해 새 아침에 좀더 가슴벅찬 좀더 아름다운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장한 생각이 자꾸 커집니다. 1996년! 주여 이 나라에 화평을 주소서. 이 교회 위에 은총을 내리소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찬양위원회 / 위원장 손동운 장로

찬양대원의 계속 교육과 영성훈련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며, 구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와 노래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된 악기인 우리의 몸을 악기로 잘 가꾸고 다듬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가 향기나는 산 제물로 열납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전 찬양대원의 계속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하여 더욱 수준 높은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



며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뿐 아니라 충현의 온 성도도 찬양대원화되어 우리의 삶이 곧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우는 차원에서 육성시켜 한국 교회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위원회 / 위원장 김재명 장로

예배시간 10분전 참석, 예배위원의 전문화, 성례의 신실한 시행으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예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중 첫번째가 '신령한 예배'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금년도 예배위원회에서는 더욱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예배시간 10분전에 참석하는 것을 정착화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 늦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만나기 몇시간 전부터 미리 가서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도가 늦어서는 아니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10분전에 참석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배위원을 더욱 전문화되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헌금위원의 전문화를 더욱 강화 하겠으며, 특히 주일 1부 예배는 안수집사들이 담당합니다. 또한 안내위원들의 철저한 훈련과 봉사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 는 것은 예배마다 특성이 있어서(예를 들면, 주일 2부 예배는 강대상을 바라보며 오른쪽 좌석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성도들로 예배전에 차는대 왼쪽은 많이 비어서 미리 왼쪽으로 좌석을 안내함) 자리가 빈 곳으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할 때 마음에 안들어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금년도 성례는 모두 4차례 시행하는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 위원장 김영개 장로

새해, 교회 학교의 다섯 가지 목표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목표를 세워 오늘날까지 교회학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진실된 천국일꾼으로 키워야만 그들 자신이 살며, 그 가정이 살며, 교회가 부흥되며, 민족복음화가 앞당겨지며, 세계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다음 다섯 가지 구체적 목표아래 천국일꾼을 키우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예배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학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성어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학교 구원의 확신 없이는 마음에 평안도



기쁨도 없고 희생 봉사와 전도도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착하고 선한 행실을 불신자에게 보이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교회학교 날로 감감하여지는 흑암의 세대에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려야 하겠습니다.

넷째, 희생 봉사하는 교회학교 이기주의가 편만한 이 세대에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 봉사할 일이 없는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학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해야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성령님께서 26부 교회학교에 항상 같이하시어 진실된 천국일꾼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전도위원회 / 위원장 강은원 장로

1996년은 복음을 전합시다

스데반과 빌립은 초대 교회의 능력있는 복음의 정병으로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서 우리가 스테반같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순교하는 그러한 집사, 장로, 교역자를 찾아볼 수 있겠으며 또 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는 집사와 장로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도 방법 또한 너무나도 성경적인 방법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책임을 소수의 교역자들에게만 의지하며 안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방법 또한 너무나도 의식적이고 기계적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큰 전도대회를 여는 것이요, 이렇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즉 행사위주의 전도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같이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가 전도의 사명이 오직 교역자에게만 책임지우는 그러한 태도였다면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빛나는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전도의 열정이 일반 교회와 성도들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우리 성도들이 자기네들의 안이한 신앙만을 위하여 현재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이 땅의 복음화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위기의 상태를 예상해보면서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의미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현교회가 양적으로도 배가가 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전도활동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교위원회 / 위원장 노광현 장로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1996년 새해는 2000년을 5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모든 교회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나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표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1만 2천 미전도종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교권의 재확대도 이루어야 할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북녘땅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선교적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세계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의 만행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금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송진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였고, 지금도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현교회는 21세기 세계선교를 앞두고 새로운 선교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륙에 우리 목회자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각적 선교를 펼쳐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물론 교구와 교회학교가 협력하여 총력선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실력있는 선교사를 발굴하여 양성하겠으며,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의 현장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연구원을 통하여 선교의식이 확장되고, 탁월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불꽃을 이어온 충현의 성도들에게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사위원회 / 위원장 김은호 장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범을 닮으며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희망과 기대와 새로운 다짐 속에 허락하신 1996년도에 봉사의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봉사는 말의 뜻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표기되어 있으며, 어원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출 30:16; 레 23:17; 민 3:6).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희생의 극치이며 인류 역사에 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각양 은사를 받은대로(구제, 차량봉사, 경조, 미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울 만큼 섬김에 무디었던 저에게 생소한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차량봉사부를 찾아 몇분을 뵈었을 때 영화의 강추위에 열굴, 손발이 얼고, 질식할 정도로 저하추차장에서 뿜어내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매연에 시달리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며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섬김의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찾아 관계현황들을 참고하는 중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봉사전 운영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찾아오고 요청해오는 많은 구제 대상자들,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출소자, 경로원, 재환원, 고아원, 기타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 시골 개척교회, 재난 당한 자들에 대한 특별 구제 등…… 개인, 단체에 도와야 할 분들이 너무도 많

금년도 우리 부서의 소망은 배부른 교회가 되어서 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빈손, 섭섭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힘쓰고 ② 세대마다 헌신 모으기와 절미운동을 전개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을 구상해보며 ③ 재적 100여명에 가까운 차량봉사위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케 하고 위로하며 축복기도 해주실 지도 목사를 모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④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성도들께서는 효과적인 주차질서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자동차 문화에 성숙미를 발휘하시고 안내하는 분들에게 협조의 미덕을 배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⑤ 그밖에 성도들 가정의 경조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미화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정성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께 기쁨을 드리며 교회부흥에 기여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획실장 / 오진국 장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실의 새해 소망도 가져봅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동안 교회 관리, 건축, 사무국에 사 봉사하다가 교회 방침에 따라 기획실로 자리를 옮겨보니 생소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전임자가 깔끔하게 처리했던 기획실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다짐해 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무척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석중인 당회장 청빙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선교, 전도, 봉사에 이르기까지 활력소가 넘쳐나는 교회 행정이 되도록 일선에서 뒷받침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헌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회 방침에 따라 매례제향적인 충현교회 부흥발전에 획기적 기획과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각종 사업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일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더욱 기도

새해에 소망한다

기획위원회 / 위원장 김차생 장로

주님 명령 실천할 뿐!

9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식구와 함께 골고루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한해는 무척 건디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했고 사고가 많았고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흘러간 과거역사이지만 이를 거울삼아 96년 한해는 상처가 없는 평안의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기획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에 감당할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 두려운 것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저로서는 너무나 벅찬 직책이기에 온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설상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모든 주의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 교회에 속한 우리 충현교회가 진리파수와 복음사역의 큰 명제를 앞세우고 봉사, 충성할 때에 각 위원회간 또는 부서간의 협력체제라든가 교량역할을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 큰 조직이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일을 기도하며 감당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성장의 정책기획, 이를 추진할 성도들의 단합, 그리고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조화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회행정을 원활히 수행시킬 책임도 느낍니다.

43년의 연륜을 가진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기본 신앙지침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되 비진리적, 비성경적 요소가 절

대로 끼어 들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욱 열심내어 헌신하는 우리 충현교회의 전통을 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의 토대를 더욱 구축하며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행정위원회 / 위원장 김의철 장로

전산화 업무 계속 추진

96년을 맞이하여 충현의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96년은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43년째 되는 해이며, 교회내외적으로 국가나 국제적으로 또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온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러한 격동기를 맞아 더욱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바야흐로 세계는 지식, 정보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 한층 실감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정보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전적인 흐름까지는 쫓아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과학적인 수준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러한 면에 관심을 보여 1987년부터 교회전산화를 시작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용부서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산화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이러한 면에서도 한국 교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회 직원의 회생 봉사하는 정신을 잊지 않고 모두가 이를 이해하며 화합하고 돕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온 교우들의 필요한 손과 발이 됨을 이해하고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교우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우들은 직원들의 회생 봉사하며 애쓰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진정한 화합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운영은 교회방침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적이고 감정적인 면보다는 말씀 중심의 기도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초에 했던 것과 같은 부흥사경회식의 집회를 3~4 차례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는 기도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국장 / 윤명식 장로

교인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

새해의 가장 큰 소망은 이 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96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일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는 사건사고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격랑을 헤쳐온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국가적 격랑을 잘 선용하면 우리나라는 한 차원 높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해는 우리 교회로도 큰 시련의 시기가 있었고 그 시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면서 교회를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으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기대를 갖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당회장이 속히 취임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신실한 종을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니 새해에는 온 교회가 새로 오실 당회장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 살이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



받고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람들의 집합체인 만큼 온갖 속된 인간의 냄새와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목회적 차원의 대처는 교역자들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적이고 환경적인 대처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해 우리 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교인을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행정을 떠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사무국은 우리 교회의 창구요 얼굴인 만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심없이 지금보다 더욱 친절하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교인들을 섬겨나갈 생각입니다.

또 교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는 충현공동체의 일원인 만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규정을 준수할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나, 서신으로나 혹은 직접 찾아오든지 하여 좋은 건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롭고 안식되고 즐거움이 되어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새 당회장을 모시고 새롭고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다리며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구위원회 / 위원장 강순용 장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1996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이 한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교구일꾼들과 성도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96년은 첫째, 압록강



나루터 야곱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교구위원장을 맡아 교구의 모든 행정과 업무를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교구에 소속되어진 가정과 구역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구위원회에서는 13대 교구 26교구에, 139지역, 891구역과 국제교구, 그리고 새가족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구와 새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서 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96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로삼방이 있고 또한 연초에 실시하는 지역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대심방과 그밖

새해에 소망한다

의 모든 심방들을 통해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며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나누며 흑시 소외된 가정들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구 찬양대 및 상호회 운영이 원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역예배와 교구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는 구역, 모이면 기도와 흠어지면 전도하는 구역이 되어 111운동(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운동)을 벌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자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며 전 교우들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행사들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력구역별(최소 협력구역별, 최대 지역별)로 남자성도들이 구역모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교구모임시 교구 자체 성경퀴즈, 암송대회, 가족찬송부르기대회 등을 전도회와 연합하여 실시하여,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의미있는 모임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로이 등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새가족부가 올해부터는 교구위원회에 속하게 되었

데 새가족양육부와 교구양육위원과의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여 하나됨을 확인할 때까지 앞장선 일꾼들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많은 관심을 쏟아주어 충현교회에 한번 등록한 신자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교구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구장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모든 가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누는 부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그 사명이 더욱 지대한 줄 압니다. 구역의 역할은 교회의 윤택유가 될 것이며 구역장들의 역할은 교인들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 위원장 최대원 장로

요셉이 가졌던 청지기 정신을 되새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96년도 충현교회의 큰 살림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지혜나 능력면에서 부족한 저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재정위원장의 소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재원을 적절하게 지체(위원회)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지체(위원회)들은 효과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예산은 매년 10%씩 증가했음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예산에 넘치는 현금을 성도들이 해주심으로 교회 목표의 무난히 달성해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6년에는 재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 특히 교육, 선교, 구제에 많은 비중을 둘으로써 교회의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가오는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새 기도원 부지확

보, 성지연구소 설립, 본당 주변의 주차장 증설 등에 예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각 위원회의 책임하에 하나님의 사업확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항상 보디발 집안의 총무였던 요셉이 가졌던

청지기 정신을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정성스런 헌금으로 조성된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이는 청지기가 되는 셈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하였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올해도 저와 재정위원들 그리고 본당 2층 수납처(회계)에서 수고하시는 부원들은 요셉의 청지기 정신을 되새기며 충현교회의 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 비서실장 / 이종국 장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책에 충실

1996년 한해를 시작해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어리고 우매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함이 없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표출해 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1996년에는 교육국장이라는 큰 달란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1천 4백명의 교사와 8천여명에 달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시때때로 내려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지혜가 천국일꾼을 양성키 위한 충현교회 목표를 만족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생활의 지속, 성경말씀의 체계적 연구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은 봉사자들은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출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말씀 배우는 일, 또 전도하는 일과 무엇보다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의 증진, 사회 의식구조의 급변으로 인



한 사명감 고취 등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교회학교 행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한 방법으로 교육국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각부의 부장과 지도교

역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유기적 관계 설정은 조직을 원만히 운영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책무가 부족한 저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려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들의 다양한 변화의 욕구, 장노년층의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키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은 교인들의 교회학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등 주어진 책무에 충실히 헌신코자 합니다.

그리고 당회장 비서실의 전반적 운영을 부드럽게 하여 당회장과 성도들 간의 신앙상담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며, 대화를 통한 양보와 배려 등 목회에 전념하시도록 결에서 돕는 일을 열심히 하려 합니다.

1996년에는 알찬 수확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서 행통의 복 받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기도와 애정어린 재도와 편담을 당부합니다.

감사위원회 / 위원장 박승준 장로

회개운동과 과감한 갱신을 시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미 시작되고 과거청산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적용되면서 밖으로는 세계화, 한으로는 신한국 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은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은 하향곡선으로 침체기에 들어선 지 오래 되고, 진리파수와 경건생활을 자랑하던 보수층 교회마저 세속화의 물결 속에 신앙의 질적 저하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를 주도해야 될 장자교단의 장자 교회로 주목받는 충현교회는 어떻게든 새롭게 태어나는 개혁의 몸부림을 보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 나이가 43. 장년기 충현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미래지향적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 당회차원의 장단기 목회 전략준비는 물론이고 청장년의 양육에 전념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탄문화



의 적극적 유혹 속에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으며 인쇄매체에서 영상시대로 탈바꿈한 빠른 속도의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처방과 함께 교회성장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라기는 새 당회장을 맡게 전에 지난 날의 교회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뜻에서 회개운동과 과감한 갱신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원로목사님께서 봉헌헌금을 위한 기도중에 "단 1천이라도 귀하게 쓰도록"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재정담당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당회장 직속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회계 및 행정 감사)을 정기, 수세, 책면, 현장감사를 통해 각 부서 및 기관을 실패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어느 부세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1996년 충현의 도약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축위원회 / 위원장 남선우 장로

모든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새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 88년 12월 20일 오후 2시 헌당예배를 드린 지 7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그 웅장한 교회와 남아들던 공간들이 지금도 주일날이면 교회학교와 각 교구, 전도회의 모임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모임의 장소가 모자라고 주차장의 협소 등 또 다른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던바 제2교육관 건축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대지 733.35평에 세워진 제2교육관은 지하 4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2,860평 규모입니다. 대략 지하 3, 4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 전기실 등이 자리하게 되며 지하 1, 2층은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유자를 위한 공간과 집회실로 활용되고, 지상 1, 2층은 예배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2교육관을 착공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건축 공정은 약 70% 진척된 상태입니다.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설비 및 전기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는 타일과 창호공사, 수장, 유리, 도장 및 조경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석공사가 이미 발주되었는데 애초 봉사관과 동일한 잔다듬공사로 설계되었으나 본당의 모습과 같은 흑두기 돌붙임을 하기로 하여 본당의 모습과 밸런스를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흑한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절기에 꾸준히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9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은 현재 차질이 없는 한 외부 돌공사와 내부 미장과 함께 금년 3월경에 완료되어 4월 중순에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 1:8) 성전은 성도들의 헌신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이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온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도로 헌신하고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역을 마치면서

주님, 저 같은 것을 데리고
일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김정순 전도사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

염전의 바닷물이 중발한 뒤엔 소금만 남듯이 지난 17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어느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주위의 끈질긴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랜 망설임 끝에 겨우 결정한 신학이었기에 늦깎이 전도사가 된 것이 1979년 내 나이 50세 때였다. 처음 부임한 곳은 남가좌동의 명지대학교였다. 그곳에서 3년동안 사역을 하면서 충현교회에서의 구역장 교육이 얼마나 알차고 귀한 것이었단가를 날마다 체험했다. 백성통 목사님의 교육을 받으며 구역을 돌본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 되어 내 사역을 얼마나 풍성케 했는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었다.

1982년 타의반, 자의반으로 모교교회인 충현교회로 왔다. 대학부, 소망부, 교구, 일어통역 등 여러 일을 하다보니 얻는 것이 참으로 많았다. 대학부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했으나 뜻하지 않았던 발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소망부에서의 사역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였고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 기도해주시고 반갑게 대해주시는 어른들의 사랑이 늘 감사하다.

손꼽아 심방날을 기다리며 "김전도사님 이번엔 28일만에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이 32일째예요. 안오시기에 지금 하나님께 김전도사님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며 그렇게 사모하던 어른들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하시며 가르친 것을 암송했다고 자랑하여 나를 기쁘게 하시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 어른들을 주님 앞에서 뵈게 될 때 그 얼마나 기쁘랴. 소망부를 내게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 중의 은혜였다.

처음 일어통역을 부탁받았을 때 40년만에 하는 일이라 토요일 저녁에 설교원고를 받고는 아는 단어도 모조리 사전으로 확인하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기도 했다. 처음 통역을 하고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였는데 어느새 6년 반이 다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일 미래지도자 대회 때였다. 일본의 유명한 요시모찌 야기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통역을 마치고는 마치 때

이크를 생각 못하고 엎드려 울어버렸다. 나중에 들으니 내 울음 소리가 마이크를 흘러나와 모두 울었다고 한다. 그냥 듣고 스쳐갔을지도 모를 말씀들이, 통역하다보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것 또한 특혜 중의 특혜다. 또한 가지는 일본어 예배 때였다. 시미즈 요시오 목사님이 막 취임하시고 수속 때문에 잠시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됐다. 예배시작 직전에 야 카운을 입으라고 하니 몸에 맞는 것이 있을 리 없다. 큰 카운을 입고 일본어로 '한 알의 밀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더욱이 1년 4개월의 교구사역은 참으로 풍성한 은혜와 보람을 주었다. 뭐니 뭐니해도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은 큰 보람과 기쁨이다. 장례를 통하여서 인가귀도되는 일은 참 많다.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열심히 일꾼들이 된 것을 보면 가슴에 감사가 넘친다. 이러한 일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낙심하고 기도하면 나는 비록 보지 못해도 남은 가족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다. 이제 교구를 떠나면서 충성하시던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땀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 열납됨을 믿는다.

지난 95년도에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 하나님도 바쁘셨나보다.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성서순례를 갑자기 허락하셨다. 일생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었고, 값진 졸업여행이었다. 후한 상급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출발할 때 건강을 염려했지만 동역자들의 사랑과 도움을 힘입고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게 되어 여러모로 많은 은혜를 힘입은 한해였다.

이제 17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여본다. 직조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로 삼으시고 17년 길이의 특수한 직조물을 짜셨는데 때로는 고뇌의 색채로 때로는 사랑과 환희의 색채로, 때로는 감격의 색채로 그리고 참회의 색채로, 수놓아진 이 필독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기도를 할 것이다. "주님, 저 같은 것을 데리고 일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새해를 여는 시 ◆

하나님, 새해에는

이정신(제51교구)

너무나 많은 죄가 가리워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

높은 십자가에서 애처러이 흘리셨던
죄 없는 피 흘림도 마냥 몰랐습니

내 죄를 대신해 죽은 사랑을
약의 꼬임에 속아 비방하고

내 육신의 병을 채찍의 고통으로 고
치심도
끝없는 자만에 빠져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 많고 어리석은 영혼을 받아주시
옵소서

지치고 무거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오오니

세상 꺼풀은 한 겹 두 겹 벗기시고
붉은 피 보혈로 씻기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엔,
은혜로운 사랑 영혼 밭에 심기위
백 배 천 배 열배를 맺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오직 그 분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
끝 모르는 은혜 향하여
발돋움해 올리는 높고 높은 찬송

주님만 홀로 알아주옵시고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온 땅과 생명의 주인이신 왕중의 왕
이시여!

새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랑으로

당신께 드리오니
은총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지난 12월 31일 저녁 찬양예배시
박인세, 임봉남 장로 및 김정순 전도사 등

지난 12월 31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는 정년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은퇴식과 동일 직분에서 오랫동안 근속해온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포상식이 있었다.

은퇴자로는 박인세 장로, 임봉남 장로, 김정순 전도사를 비롯해 권사 33명이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로는 장로 15년 근속에 오진국, 정하우, 이병학 장로, 권사 20년 근속에 백죽심, 서 옥, 신군자 권사 외에도 권사 15년 근속에 22명, 권사 10년 근속에 27명이 각각 장기

근속자로 수상하였다.

또한 서리집사 20년 근속에 장석환, 정상주, 임정자 집사를 비롯해 서리집사 15년 근속에 52명, 서리집사 10년 근속에 96명이 각기 서리집사 장기근속자로 수상했고, 직원으로서는 강영철 집사가 2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사진은 지난 달 31일 저녁찬양예배에서 은퇴장로로서 기념패를 받으시는 박인세 장로의 모습이다)



'96 총헌청지기 훈련

1월 19, 26일 금요일에

본 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는 '96 총헌청지기훈련을 1월 19일(금)과 26일(금)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기도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헌신케 하여 교회를 성장케 하는데(딤후 2:15) 그 목적을 두는 이번 청지기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봉사와 전도로 열매 맺자!',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목표 아래 본 교회 본당에서 실시된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제 찬송은 378장(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이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과 각 부서 봉사자(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각 전도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원, 차장관리부원), 그리고 평신도중 원하는 자들이다.

김창인 목사와 윤영탁 목사를 강사로 하는 청지기 훈련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날 (1월 19일)

6:00 - 7:00 식사 및 교제시간
7:00 - 8:00 강의(1) (강사: 김창인 목사)
'청지기과 제직 봉사'
9:00 - 10:00 기도회(인도: 김창인 목사)
'제직을 위한 기도'

둘째날 (1월 26일)

6:00 - 7:00 식사 및 교제시간
7:00 - 8:00 강의(2)(강사: 윤영탁 목사)
9:00 - 10:00 기도회(인도: 현상민 목사)

안수집사회실 교육관 114호

안수집사회실이 교육관 114호실(이전 밀알선교단 사무실)로 결정되어 새로운 단장을 끝내고 새해부터 안수집사회실로 이용된다.

그동안에는 본당 종탑 7층에 안수집사회실이 있어서 매일 1회 월례회시에만 이용했으나 이제는 주일 내내 개방되어 안수집사들의 모임의 장소가 확보된 셈이다. 따라서 안수집사들은 주일 중 어느때든지 이곳에 들러 교제와 업무 처리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안수집사들이 수시로 이곳에 들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공동의회

오늘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인다. 안건은 1995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안 심의, 원로장로 추대의 건이다.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본 교회등록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4.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5.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6.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7.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8. 경로심방을 받으시는 성도들에게 올 한해에도 건강과 능력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9. 본고사 및 예제능 실기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1996년도 헌금위원 명단

제1부 예배

안희정 이석영 전용해 이만기 이실호
유상태 이영일 오동환 이부성 강철형
김점석 서동석 김춘권 김단영 김달현
이달옥 오인근 전홍렬 박승길 이지길
김구형 김영수 정정길 최윤덕 진홍용
최기홍 엄균영 허 오 손기현 황현철

제2부 예배

1층
백영자 홍경선 정호진 박애영 이한순
김월매 손공립 이정림 안순옥 문성애
김경숙 한금자 박윤주 이명숙 김종순
윤향중 박귀숙 박희숙 최지선 정순옥
정복순 백옥심 정옥희 조종민 강정희
이동섭 라성찬 이용호 김화순 조홍연
장병택 이병석 김성순 정복득 김상희
박옥례 한석연 여명수 장경수 정효석
김재춘 고명신 김월분 유홍자 배연식
유옥련 신은소 장승규 전삼진 오정훈
강만호 민현숙 김충식 양백주 안숙자
김상인 박정심 유명래 김은숙 강정일

2층
유형근 김성숙 이용희 김정순 이재승
백영기 이옥자 강순희 전세종 정중진
정효석 김현주 옥경옥 정영현 김경순
김행자 송경희 김경희 임인호 김명재
이경순 권오준

제3부 예배

1층
주낙진 예정호 임정희 정순화 유상자
김용조 이승옥 이매란 김인수 김종만
김재순 이영순 박문선 박옥자 박경우
신차식 염낙서 임대여 김순자 최영숙
김철수 이춘희 남은희 황민자 신현주
이은단 전방자 이순자 하말영 김영희
양혜원 김경자 양정원 은필배 김희술
김종순 안정선 오세길 안호현 신기만
김필녀 이금수 마경자 이기찬 안영자
이형찬 김예경 민행남 최한중 이삼세
김경희 박종운 유정지 김봉숙 김순옥
권기태 이영숙 윤석규 정영숙 배귀녀

김지순 서정애 오춘실 김영미 김명희
정형심 박선옥 유병열 유호순 노분선

2층
박정숙 김기홍 윤희중 박차화 유재익
이재문 유병순 박갑연 김영화 김경순
안정자 정길래 김종순 심복순 정태수
최순영 김영희 이상문 김차금 고효영
박광자 김승래 이용래 송숙희 이오목
문정덕 이경애 김성금 서경자 김준희
김장호 김복희 엄계열 김종섭 이희석
김해선 이호근 한동열 손무길 박희승
김해경 장옥순 손복희 김지연 김동순
정은희 김순자 김순자 최정자 이영의
김정란 김상호 홍순희 김동화 김희분

제4부 예배

1층
한중남 백충근 정애화 정진녀 최영옥
김정옥 김지찬 장옥순 조미자 박용호
임삼래 문경안 박찬서 장금출 소길순
심영순 최길자 김인단 최계순 최진성
윤선정 한정옥 이정립 최승철 배옥순
유주옥 박명숙 윤리리아 고지현 천수자
방신자 김미자 진명화 이상관 이용주
전경금 조동석 김명숙 고영해 유길자
정운환 김미혜 이홍우 변경심 조옥주
민태영 이순영 김영수 손유비 정미자
홍원석 신은자 강수연 송영준 변금순
윤경중 양영숙 한영란 김경애 전영희
석귀수 천현애 김재운 전은실 이영수
이상금 성춘순 전금수

2층
김순중 이성숙 박성남 구자옥 자서운
김영진 김재남 양은숙 권필순 이기애
이영복 박귀순 김동희 서연석 문상식
최창길 최명희 오경록 오종현 문우식
송춘임 선화성 양영자 송영준 변금순
윤경중 양영숙 한영란 김경애 전영희
석귀수 천현애 김재운 전은실 이영수
이상금 성춘순 전금수